

●박주미 국립목포해양대 해군사관학부 교수 ‘임진왜란 해전의 이론과 실제’ 발간



국가와 군, 정치와 군의 관계,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 등이 화두인 요즘, 역사를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게 하는 신간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박주미(사진) 해군사관학부 교수가 2025년 새해 ‘임진왜란 해전의 이론과 실제(부크크판)’를 발간했다. 이 책은 해군으로 20년 넘게 복무한 저자가 군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그동안 알고 싶었던 임진왜란 당시 해전 관련 군사이론과 실제의 모습을 담았다.



군사학자가 쓴 임진왜란 해전 이야기

‘임진왜란 해전의 이론과 실제’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임진왜란 해전과 관련한 총 11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준비와 수행, 분석 총 3장이다.

1장 ‘준비’편에는 조선 초기 왜란에 의한 수군 변화를 통해 임진왜란에서 승전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 연구, 일본 전국시대 해상 세력의 형성 배경과 전술 등 참전했던 일본 수군에 관한 연구, 전쟁 준비를 위한 이순신의 수군진 운영에 관한 연구 총 3편이 담겨있다.

2장 ‘수행’편에는 국립목포해양대 해군사관학교 고광섭 명예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한 거북선 함포의 유효사거리와 사각구역 규명에 관한 연구, 임진왜란 시기 병력 부족이 심했던 조선수군이 어떻게 병력을 충원했는지 그 방안을 분석한 연구, 명량해전 이후 조선 함대가 해상진을 이동해야 했던 이유를 전략

승전 요인·일본 수군 연구 등 전략 분석...4장 구성 “430여년전 해전 통해 오늘날 군이 나아갈 해답 찾아”

적으로 분석한 연구, 조-영 연합수군이 어떻게 해전을 수행했는지를 자율-안보 교환모델로 이해한 연구 총 4편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3장 ‘분석’편에는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의 처벌 관련 문제를 해군의 임무형 지휘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정유재란 발발 전후 수군진 배치와 관련한 조정과 조선수군과의 논란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 임진왜란 시기 삼도수군통제사 원군과 조선수군 사례를 리더-멤버 교환관계를 통해 분석한 연구, 명량해전 이후 조선수군이 구축한 해상진지 고하도가 지니는 해양전략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 총 4편으로 이뤄졌다.

박주미 교수는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 ‘군은 정치의 수단’일 수밖에 없지만, 군인은 ‘국민의 군대’라는 군 본연의 정체성과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잊지 않아야만 어디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 책은 비록 430여 년 전의 임진왜란 해전 이야기지만 군의 임무와 역할, 사명에 관한 충무공 이순신의 고뇌와 역사의 교훈을 통해 오늘날 군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진왜란 해전은 저자 스스로도 평생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책의 내용을 지속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주미 국립목포해양대 교수는 2004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해군 정훈장교로 정책부대와 아전부대에서 해군 홍보 및 장병들의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함양했다.

2009년 서울대에서 한일 대양해군에 관한 연구로 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20년 한국해군의 해양전략에 관한 연구로 충남대에서 군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년부터는 국립목포해양대 해군사관학부에서 군사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연구와 해양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정책 제안 보고서 발간

1인가구 시책·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 1인가구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 2건을 발간했다.

먼저 ‘광주시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1인가구 우수 사례를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안전지원 ▲건강지원 ▲인식개선 영역으로 구분하고 연령별, 성별 1인가구 시책을 발굴했다.

또 전문가 및 네티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 1인가구 추진과 관련해 청년여성 대상 주거안전 사업, 통합돌봄 사업 등이 우수 시

책으로 나타났다. 향후 1인가구 사업 브랜딩,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기존 공동체사업에서 1인가구 사업 연계 강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도출됐다.

이같은 내용에 따라 ▲1인가구 추진체계 강화 ▲정책 통합 정보 제공 강화 ▲기존사업과의 연계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1인가구 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 제2차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다른 보고서는 ‘광주시 모부성보호제도 활용실태조사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다.

이 연구는 광주지역 유자녀 임금근로자 917명을 대상으로 모부성보호제도 활용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유자녀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8.8%, 여성 35.5%로 나타났다. 사용자

간도 남성은 평균 69개월, 여성은 121개월로 나타나 사용 특성의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동일직장 복귀율은 84.6%로 나왔다. 제도 사용을 통한 고용 유지 효과는 확인되나, 비정규직의 직장 복귀율은 4.67%에 불과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부성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은 여성보다 사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제도 사용으로 승진·배치·보상·평가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지역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조직문화개선 ▲제도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남성 근로자 육아참여 지원 강화 총 4가지로 제시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기대없는 토요일=윤지양 저자 윤지양 시인은 일찍이 등단작 ‘전원 미풍 약풍 강풍’에서부터 일상의 실마리를 포착해 시적인 상황으로 확장하는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였다. 윤지양의 시작(詩作) 경향은 시 아닌 것(非詩) 사이에서 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비시각각’(非詩刻刻) 프로젝트와 그 후속인 ‘시시각각’(詩詩刻刻)을 통해 더욱 예리하게 발전했다. 웹진 ‘비유’에 연재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이 프로젝트는 비시(非詩)에서 자발적으로 시를 읽어내도록 했고, 이를 통해 비시(非詩)와 시의 위계를 허물었다. /민음사·1만3천원



▲기본 리셋=알리 압달 지음, 김고명 옮김 세계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은 생산성 전문가이자 600만 유튜버 알리 압달은 수십 년간 축적된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다양한 일과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애써온 결과, 새로운 비결을 찾아냈다. 바로 ‘기본 좋은 생산성’이다. 마인드셋을 전환하고 저자가 알려주는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행동 지침을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위즈덤하우스·1만8천800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노한동 저자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저자는 정부와 관료 조직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방패막

이로 두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심층적으로 비판한다. 가짜 노동과 쓸데없는 규칙, 한강 작가가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그늘과 여파, ‘구름뿔’과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사태가 근본적인 창작자 보호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 등 작가의 공직 비판은 더없이 신랄하고 폭발적이다. /사이드웨이·1만8천원



▲장미 농물 이층집=윤경미 글, 김지영 그림 이 책은 오해에서 화해까지,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하는 가족 이야기다. 가족 간의 오해는 가까운 거리만큼 쉽게 발생하고 미움

으로 발전한다. ‘장미 농물 이층집’의 가족들도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대신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깊은 곳에는 아픔을 나누고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 가족들은 모두 큰 짐을 지고 있지만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 알게 된 친구, 예상치 못한 침입자와의 소동으로 서로의 마음을 대화로 공유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다. /고래책방·1만3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호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